

학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당신 을 찾습니다!

발신 :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제 23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우리 학교에는 400명의 '투명인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건물 복도와 강의실, 화장실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연세대학교에는 약 400여명의 미화/보안직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매일 연세대의 새벽을 열며 묵묵히 그 노동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관리, 청소 및 보안 업무는 연세대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간접고용)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내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체불임금, 해고위협, 부당노동행위, 학교와 용역회사의 중간관리자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등 수많은 노동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러한 일상적 착취와 억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또는 일회용품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학생들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조직을 추진하였습니다. 1년간의 휴게실 방문, 대동제 연대 장터, 부당인사 저지 항의 방문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08년 1월 26일 연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가 출범하였고, 이로써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만들어 온 우리의 투쟁들, 소중한 승리들

연세대 분회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기에 결성되자마자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1월 학교와 용역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년 62세 감축', '용역비 10%삭감'의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100여명의 대량해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계약내용이었습니다. 1월 26일 출범한 연세대 분회는 '정년축소 저지, 고용승계, 체불임금 지급,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1월 29일부터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였고, 농성 이틀 만에 첫 투쟁에서 고용승계와 정년보

장을 쟁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회 투쟁에 연대했던 수많은 학생들의 힘은 매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 첫 투쟁을 계기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 이후 연세대 분회와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는 많은 투쟁들을 진행하였고, 작지 않은, 그러나 결코 크지 않은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인 체불임금 3억 5천만 원을 원청인 연세대학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한 고무적인 사례로 여러 언론매체들에 의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동제 기간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노동자-학생 연대를 공고히 하는 연대장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한열 열사 추모제를 맞아, 연세대 분회 조합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경에는 경비무인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냄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노동절과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생활임금 의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신촌 지역에서 선전전과 집회/ 행진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세대 분회는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도 열정적으로 연대하였습니다. 2008, 2009년에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등록금 문제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사제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 안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넘어, 고려대·고려대 병원·이화여대 분회와의 집단교섭 투쟁을 통해 모든 청소·경비노동자들,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더 큰 싸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대 분회가 걸어온 길에는 항상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존재는 항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 매번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선 이들은 바로 연세대 분회 노동자들 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조화롭게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연세 학생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촉매였습니다.

지금 또 다시, 우리의 투쟁과 연대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까닭

그러나 2011년의 문턱에 선 지금도,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싸움을 만들어 나아가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연세대학교 당국은 (연세대 분회에는 공식적으로 알린 적 없는 채로) 청소·경비 용역 하청업체 변경을 공개 입찰했습니다. 학교가 내놓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조건 속에는 기존의 고용승계나 단체협약 계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세대 분회와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가 지난 3년 동안 힘겹게 학교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싸우며 얻어낸 승리들이 '간접고용'이라는 기만적인 틀 안에서 모두 물거

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 분회들과의 집단교섭 투쟁도 의미를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그 계약조건에는 당장 1월 1일부터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의 1/4 가량이 해고될 수 있는 '65세 정년 제한'뿐만 아니라, '미화원의 과실 및 비협조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3일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그렇게 싸게(아직까지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은) 이용하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 치울 수 있는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노동자와 학생들의 강한 연대로 당일 본관 점거 농성까지 벌여내며 입찰 설명회 참관과 임금 상승 등을 보장받는 승리를 이뤄내기는 했지만, 학교 당국의 지난 모습들을 보면 언제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 권리를 얻어내고 노동조건들을 개선했어도, 언제든지 “그건 당신들과 용역회사 사이의 일”이라고 학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간접고용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정 노동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가 내놓은 계약조건에 드러났듯이 연세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분리수거를, 경비노동자들에게 우편 배달 같은 구체적인 업무조차 부과하려 하는 실제적인 사용자, 원청이지만 간접고용 제도는 학교가 노동권 보장 의무로부터는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형식적/법적인 사용자인 용역회사와 실제적 사용자인 연세대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먼 일입니다. 간접고용구조와 이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존속하는 한 연세대 분회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투쟁은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입찰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대문을 장식한 소위 ‘연세대 쓰레기남’ 사건입니다. “연대 쓰레기남은 있어도, 교직원 이 폭언, 폭행 당했다는 소리는 없다”며 “학교가 우리 청소미화노동자들을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학생들도 그대로 배우는 것 아니냐”라는 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장의 발언처럼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동시에, 매일 마주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무심코 그냥 지나치던, 그/녀들을 다시금 ‘투명인간’으로 만들던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연세대생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목소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시혜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중에 약 55%(870만)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가히, 비정규직 천만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는(예전에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고용제도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화는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내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도, 인턴을 준비하면서 '과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도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앞으로 어딘가에서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청년실업률(9%)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되며 대졸 취업자의 70%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곧 학생들의 문제이고 비정규직 투쟁은 곧 우리 학생들의 투쟁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이 '취업 학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학은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대학교의 행태는 부도덕한 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권의 보장 없는 고액의 등록금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권의 보장 없는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 학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임금을 올리려면 등록금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심지어 학생들의 교육권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립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해 보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인 한 시간 5,180원으로 올려도 학생들의 등록금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누군가의 권리의 박탈을 전제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학생과 비정규 노동자는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기야 할 때입니다. 억압과 착취에 무감각할 것을 강요하는 지금의 사회와 연세대학교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고 싸워나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